

# 광주시, 모든 시민이 권리로 보편돌봄 누린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고 신청하면 끊김 없이 연결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6년 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돌봄 체계'로 완성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돌봄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권리로 누리는 모두의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폭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용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월소득 41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72만원 이하일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의 실수요성을 높이고 과잉·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본인부담을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는 무료이며, 90~120% 구간은 본인부담 30%, 120~160% 구간은 본인부담 60%가 적용된다. 보다 많은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 15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 전국 돌봄과 중복·누락 없는 통합돌봄 체계 운영

광주시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준비를 모두 마쳤다. 전국 돌봄이 노인과 장애인에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큼, 광주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돌봄'을 시민의 돌봄 진입경로로 삼아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고도화된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비 13억4000만원을 포함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해 11월10일 서구 차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의료요양 통합돌봄·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간담회'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통합돌봄 4년 보편돌봄으로 완결... 국비 13억 등 90억 확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지원대상 광주시민 77%까지 확대 생활돌봄·주거안전돌봄·의료돌봄 등 13종 돌봄 서비스 연계

총 9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수준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통합 판정 체계를 구축, 돌봄 상황과 욕구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복합 문제에 대한 통합 조정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보험 탈락자 등 기존 제도에서 놓쳤던 돌봄 수요자를 추가로 발굴한다.

◇ 한 번 신청으로 더 촘촘하게...광주형 돌봄 연계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연계하는 것이 강점이다.

올해 통합돌봄을 시작하는 다른 지역이 평균 7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해 광주는 13종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가사·식사·병원동행 등 생활돌봄을 기본으로 대청소·방역·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돌봄, 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가 직접 방문하는 의료돌봄까지 일상과 건강을 함께 살피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이나 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약물 부작용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퇴원환자 돌봄·사후관리 강화  
광주시는 수술이나 병원 퇴원 직후가 돌봄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는 점에 착안해 퇴원환자 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병원을 통해 동행정복지센터나 자치구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으며, 현재 49개 2·3차 병원 및 요양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또 맞춤형 서비스 연계력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모니터링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집중관리군을 선별해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서비스를 재연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기댈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홀로 남지 않는 도시가 되기를 지향해 왔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의 연대와 참여로 만들어진 돌봄 공동체의 결과"라고 말했다. /전평준 기자

##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외국인주민 지역 정착 특특 생활·행정 등 상담·통합콜센터로 현장 중심 종합 지원체계 운영 비자·취업·주거까지 연계... 내·외국인 공존 전남 정착기반 확대

전라남도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본원과 동부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교육·정착 지원을 체계화하며, 외국인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현장 중심 종합 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본원(영암 대불산단)과 동부센터(여수)를 거점으로, 서부권 15개 시군과 동부권 7개 시군 외국인주민의 상담·교육·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8월 개소한 본원은 상담·연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동부센터는 지난해 3월 수탁기관 선정 후 여수상공회의소에 설치해 동부권 지원 기반을 갖췄다.

센터는 2025년 11월 말 현재까지 종합상담 1천591건(본원 596건·동부 995건)을 처리하며 생활·행정·노동·의료·주거 등 현장 수요에 대응했다. 또한 9개 언어로 운영되는 외국인주민 지원 통합콜센터(1588-5949)는 전화 1만여 건, 문자 2만 8천여 건 등 총 1만 3천76건의 상담을 지원해 도민과 외국인주민의 첫 관문 역할을 강화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정착 기반을 넓혔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본원 236명)했으며, EPS 토크 대비반 등 한국어교육 과정을 운영해 올 한 해 동부센터에서만 1천764명이 참여했다.

특히 본원은 '기관 연계가 곧 현장 해결'이라는 기조 아래 협력망을 촘촘히 했다. 도내의 30여 유관기관과 협약을 하고, 이민정책 네트워크 간담회를 운영하며 상담-연계-사후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

대학·기업을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 설명회도 진행해 774명의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기체류 비자 전환과 지역 정착 안내를 강화했다.

동부센터는 개소 첫해부터 '찾아가는 상담'을 빠르게 안착시켰다.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담 995건을 수행했고, 29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했으며 13개 국 언어 통번역 인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역대학,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등 다양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해 의료·노동·교육 등 현장 연계를 확대했다.

현장 지원 성과는 상담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1월 11일 입국한 E-9 근로자가 고흥의 한 사업장에서 4일 근무 후 "작업 부작업 및 신체적 문제"로 계약을 해지돼 근로·주거 공백 위기에 놓였으나, 동부센터는 인계 즉시 센터 연계를 추진했다. 다만 남성 보호시설 부재로 어려움이 있어 기존 사업주와 협의해 임시 거주를 우선 확보하고, 근로자와 순천고흥플러스센터

를 방문해 사업장 변경 신청을 완료한 뒤 고흥 지역 새 사업장 취업까지 연계해 현재 정상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2026년에는 농공단지·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특화비자 안내부터 취업 연계·정착 지원까지 안전 스톱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현장에서 내·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도 앞장서 내·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사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 광주소방, 2026년도 44명 신규채용... 내달 2~6일 원서접수

광주소방안전본부가 2026년도 소방공무원 44명을 채용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공개경쟁채용 34명(화재진압분야, 경력경쟁채용 10명(구급분야 4명·구조분야 2명·관련학과 졸업자 4명) 등 44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원서는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응시 지역·분야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다.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는 채용시험은 필기시험(3월7일), 체력시험(3월30일~4월5일), 면접시험(4월27일~5월1일) 순으로 진행된다.

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5월29일 발표할 계획이다.

신체검사에서 심사는 기준과 다르게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시행되며 약물검사도 확대돼 마약 6종(페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모두 검사한다. /송현근 기자

## "교육청도 통합하자"... 김대중, 광주·전남 교육통합 제안

### 수도권 집중 교육에 전남은 변방... 법률 제정시 6월3일 선출

이어 김 교육감은 "그 길은 올바른 길이고 가야할 길이다. 광주시교육청에 통합을 준비하지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별법이 제정돼 행정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면 교육감도 한 명으로 뽑아야 통합의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부터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고, 40년 전 시·도 분리 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통합을 논의해 왔다"며 "이 부분에 시민의 많은 회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남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교육 속에서 계속 변방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 그동안 교육대전을 통해 글로벌교육을 추진해 왔다"며 "광주와 전

남의 교육 장점을 나누기 위해 2028년 나주 공동학군제를 제안한 것이 한 예"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역사적인 시점으로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은 기회를 살려 교육을 쇄신하고 그동안 쌓아 온 광주·전남 교육자치의 다양성을 이어갈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올해 역점 교육정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K-푸드 교육센터 설립, 에너지영재 교육, K-에듀센터 글로벌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오권철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